



하이굿사마리탄재단

HI GOOD SAMARITAN FOUNDATION

주소 : 1545 KAMEHAMEHA IV RD HONOLULU HI USA / 김덕환: kimd4910@gmail.com
2021년 1월 01일(제 10호) 발행인: 김덕환 / 편집인: [김사빈 savinekim@hanmail.net](mailto:savinekim@hanmail.net)



[사진설명] 지난해 농장언덕 위에 세워진 홈리스하우스타운전경과/언덕 아래에도 하우스들이 세워지고 있다
농장끝, 나무밑 언덕위에는 올해 상반기까지 자연치유센터 및 기도원용 개인하우스들을 세워갈 예정이다.

2021년에도 백향목농장에 100동 규모 홈리스타운을 만드는 일 줄기차게 계속될 것입니다

김덕환 목사

(하이굿사마리탄재단 이사장, 백향목교회담임)

지난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19로 전 세계가 엄청난 재앙을 겪고있는 초유의 사태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희망찬 새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난 한해 이 지구에 살고있는 인류사회전체가 전염병대 유행으로 엄청난 사상자와 확진자와 생겨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전염병피해로 인하여 국가, 민족, 단체, 개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 전대미문의 환란의 가운데서도, 미국 하와이에 살고있는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교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첫째, 하이굿사마리탄재단을 통하여 작년하반기부터 백향목홈리스농장을 개발하기 시작해서 작년말까지 30여동 가까운 홈리스타운하우스를 세워서 홈리스들이 비바람피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둘째, 홈리스농장을 개발하면서 농장천막교회를 세워서 현재 매주 토요일마다 30명씩 영어예배 드리고있습니다. 셋째, 전염병 대유행의 혼란속에서 생필품이 부족한 미국 영세민들을 위한 푸드뱅크사역은 쉬지않고 월요일(교회) 수요일(교회) 금요일(농장) 변함없이 진행해 왔었습니다. 백향목교회와 홈리스농장 두곳에서 진행된 푸드뱅크사역을 통하여 매주 700명 (가족까지 합하면 약 2,100명씩) 생필품을 공급해 왔습니다.

넷째, 우리백향목교회는 지난한해 그토록 강력한 전염병펜더믹속에서도 거리두기,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면서 단한주간도 쉬지않고 지속적으로 목숨걸고 각종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하이굿사마리탄재단이 새해에 할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어가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첫째, 지난해 30여동의 홈리스하우스를 농장에 세웠지만, 올해말까지 앞으로 70여동의 홈리스하우스를 더 세워나갈 것입니다. 합산해서 총100동의 홈리스하우스가 세워진다면 완전한 홈리스타운이 될것입니다.

둘째, 백향목농장에 자연치유센터와 개인기도원을 세우겠습니다.

장소는 농장끝 나무숲 언덕위에 10동의 하우스를 세워서 자연치유센터사용자들과 개인기도원을 원하는 분들에게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셋째, 농장조경시설을 아름답게 꾸며갈 예정입니다.저는 농장에 거주하는 홈리스들이나,자연치유센터와 기도원을 사용하는 분들이 저절로 힐링이 되도록 아름다운 조경시설을 완성해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넷째, 농장에서 한달에 1번씩 진행되던 푸드뱅크나눔행사는 매달 2차례씩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사에서 이미 허락을 하였으며 10파일렛씩 대형12톤 트럭이 농장까지 배달해 줄 것입니다.

이런 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동참과 협력이 필요하며, 도네이션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속에서 독지자들을 통하여 가난한자들을 위한 미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것으로 확신합니다.

하/이/굿/사/마/리/탄/재/단/뉴/스

홈리스 농장영어교회 매주 30명씩예배드려

홈리스자활농장이 오랫동안 담당목사를 구하지못하여 정규예배를 드리지못하고 있었지만,농장이 개발되면서 지난 11월7일부터 본재단이사장인 김덕환목사가 설교를 담당해오고 있다.

김덕환목사가 매주 주일날은 하와이백향목교회에서 설교해야하기때문에 부득히 토요일 오전 10시30분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영어통역은 유미녀부목사가, 협력사역은 임헌진목사, 블루돈목사가 담임목사를 도와서 사역을 함께 해오고 있다

한편 성도들은 농장내 집4채의 거주자들과 홈디퍼하우스에서 기거하는 홈리스형제자매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약30명이 참석하고 있다.



홈리스 농장에서 한 달에 2회씩 푸드뱅크 나눔의 행사가 열린다

지난해까지는 농장에서 매월둘째 금요일 한차례씩 푸드뱅크행사가 열렸지만 새해부터는 매월2차례씩 첫주, 셋째주화요일 푸드뱅크나눔의 행사가 열리게 되었다. 새해부터 매월 2차례씩 매월 첫주와 셋째주에 열리게 되는 푸드뱅크는 재단이사장인 김덕환목사가 본사푸드뱅크에 지난해 12월 편지로 제의한 결과의 소산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재단은 2021년 하반기나 내년부터는 매주 푸드뱅크 나눔의 행사를 열어서 농장에 거주하는 홈리스 뿐만아니라 농장밖에 사는 영세민들에게도 필요한 생필품을 풍족하게 공급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임헌진제2부목사 재단총무이사(사무총장)로 블루돈목사 재단이사로 임명돼



12월20일(주일예배)때 임명받은 임목사,블루돈목사와 함께한 김덕환목사

지난12월20일,하와이 백향목교회 주일예배를 통하여 임헌진목사가 교회제2부목사로, 재단총무이사겸 사무총장으로, 블루돈목사가 재단이사로 각각 임명장을 받았다

임헌진목사는 지난해 교회재정실2층 사무실에서 월,화,수,목요일까지 공식 근무하고 있으며, 블루돈목사는 교회재정부장으로 재정사무실에서 수고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중에 열린 하와이 백향목교회 45주년 감사예배



지난해 12월6일(주일) 백향목교회 창립45주년 감사예배 모습



창립 45주년 예배 때 이수자원로권사, 이유희선교사와 함께한 김덕환목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대유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창립45주년을 맞이한 하와이백향목교회는 외부인사초청없이,자가격리중인 성도들 몇명이 새롭게 출석한가운데 은혜스러운예배를 드렸다.

담임 김덕환목사는 "우리교회는 45년역사가운데 3대목사님시절 교회의 아픈과거도 있다"면서 "아픈과거가 반복되어서는 모두에게 불행할뿐이다"고 전제한뒤, "우리교회가 성경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아픈과거를 답습하지않는 교회가 된다"고 설교하였다.그리고 그 다음주일 12월 13일 주일에는 에스겔서17:22-23절 말씀을 통하여 '백향목교회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설교를 하였다.

재단기부금 모금행사 5월달 연기돼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사태로 그동안 2번을 연기해오던 제3차 재단 기부금모금 행사가 알라모나 나호텔측의 재차 연기요청으로 다시 6월 10일(목)으로 연기되었다

"이 땅에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이웃이 많은 것은 나누면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위의 글은 어느 학생의 보내 준 편지 한 토막입니다. 여러분이 콩 한조각도 나누는 심정으로 행동하는 작은 기부와 자선이 외롭고 험하고 눈물 많은 세상을 따뜻하고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내 삶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부와 자선을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착한 사마리아 인입니다

2020년 농장 홀리스 주거용 창고하우스

후원 명단

날짜	이름	도네이션	내용
7월	장영숙	\$900	하우스1동
	김희중	\$600	굿사마리탄
	이진희	\$850	하우스1동
	윤경화/윤춘매	\$1000	하우스1동
8월	이유성/이유희	\$4,183.25	하우스5동
	김중신/김명세	\$1000	하우스1동
	김유미	\$100	창고하우스
	김덕환/박연진	\$1,000	농장개발
	이순익	\$1,000	하우스1동
	김정자	\$20	농장개발
	애나콤포스	\$100	농장후원
	박청자	\$850	하우스1동
	김용민	\$900	하우스1동
	전옥희	\$850	하우스1동
9월	박오진	\$850	하우스1동
	홍성희	\$850	하우스1동
	윤순정	\$850	하우스1동
	하갑숙	\$850	하우스1동
	임헌진	\$300	농장개발
	김평화/박금월	\$50	농장개발
	이유성 누나	\$850	하우스1동
10월	허은영/허인철	\$100	창고하우스
	김미셀	\$850	하우스1동
	이영순	\$1,700	하우스2동
	Yamaki 가족	\$850	하우스1동
	이유성/이유희	\$2,550	하우스3동
	홍성은/김한나	\$500	농장후원금
11월	이양실	\$500	농장개발
12월	이수자	\$850	하우스1동
	하갑숙	\$850	하우스1동
	윤순정	\$850	하우스1동
	이유희	\$850	하우스1동
	유미녀	\$1,000	농장개발
	김덕환	\$850	하우스1동
	임헌진	\$850	하우스1동
	임순애	\$850	하우스1동

